

# 경상도 지역의 임신·출산 관련 어휘 연구 2

- 기자의례, 준비물, 금기, 속설을 중심으로 -

홍기옥\*

|| 차례 ||

- I. 서론
- II. 현장조사와 제보자
- III.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
- IV. 임신·출산 준비물
- V. 임신·출산 관련 금기
- VI. 임신·출산 관련 속설
- VII.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상도 지역의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어휘목록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도의 여러 제보자를 통해 임신·출산 주제에 대한 다양한 어휘 수집하여,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를 목록화하였다. 여기서는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임신·출산 관련 금기, 임신·출산 관련 속설 관련 어휘를 정리하였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임신·출산의 문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말과 표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출산 문화의 변화로 임신·출산에 관한 전통적인 생활 어휘도 노년층을 중심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라져 가고 있는 임신·출산에 관한 전통적인 생활 어휘를 조사, 정리하는 일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어휘장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일 것이다.

주제어: 임신 어휘, 출산 어휘, 기자 의례, 임신 금기, 임신 속설

---

\*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 I. 서론

본 연구는 경상도 지역의 ‘임신·출산’에 관련된 어휘를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봉화, 영양, 대구 지역과 경상남도 함안, 의령,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주제에 관련된 어휘를 범주별로 정리하여 사라져가고 있는 임신·출산에 관련된 어휘를 목록화하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한 평생을 살다가 죽는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까지 겪게 되는 일을 민속학에서는 일생의례라 하는데, 그 일생의례의 시작은 부모의 기자(祈子)를 포함하는 임신, 출산이다. 이러한 임신·출산의 문제는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인류의 존속, 각 종족의 존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이처럼 임신·출산의 문제는 인류와 함께 오랜 역사를 했으므로 그와 관련된 어휘도 많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출산문화의 변화로 이와 관련된 어휘가 노년층 중심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임신·출산에 관한 전통적인 생활 어휘를 정리하였다. 임신·출산에 관한 생활어 조사에서는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임신·출산 관련 금기, 임신·출산 관련 속설 관련 어휘를 조사하였다<sup>1)</sup>. 이를 통해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목록을 체계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1) 본 논문은 홍기욱(2010) 논문의 연장으로 임신·출산에 관한 하위 범주를 달리하여 정리한 것이다. 홍기욱(2010), 『임신·출산 관련 어휘 연구』,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57집, 89-225쪽 논문에서는 임신·출산 과정, 출산 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임산부 관련 어휘를 다루었다.

## II. 연구 방법

임신·출산에 관련된 어휘 연구는 경상남도 함안, 의령, 부산 지역과 경상북도 봉화, 영양, 대구 지역 출신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 어휘를 수집, 정리하였다. 임신·출산 관련 어휘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누어 관련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조사할 범주와 명칭을 나누어 정리하고, 현장조사 후 부족한 내용은 보충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조사 범주는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 임신·출산 준비물, 임신·출산 관련 금기, 임신·출산 관련 속설에 관련된 표현을 조사에 포함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 내용

구 분	조사 내용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	기자 대상, 기자 행위
임신·출산을 위한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 임신부를 위한 준비물, 출산과정을 위한 준비물
임신·출산 관련 금기	출산 전 금기(음식금기, 행위금기), 출산 후 금기(음식금기, 행위금기)
임신·출산 관련 속설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 유산에 관한 속설, 기타 속설

경상도에서의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 조사를 위해 경상북도(영양, 봉화, 대구) 4명, 경상남도(함안, 의령, 부산) 4명의 주제보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제보자들은 모두 출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사람을 선정하였는데 그 중 2명은 어계 조려 집안의 중부로 제보자들을 통해 반가와 민가의 임신·출산 풍속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경상도 지역의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뿐 아니라 이 지역 방언의 특징도 알아볼 수 있었다.

【표 2】 제보자

이름	나이 <sup>2)</sup>	지역	기타
조설좌	80	경남 함안 군북면	어제 조려 중부, 함안에서 태어나 결혼, 슬하 1남
이점이	71	경남 함안 군북면	어제 조려 작은집, 함안에서 태어나 결혼, 슬하 2남
한정순	72	경남 의령 공류면	의령에서 태어나 결혼, 슬하 3남 2녀
최정희	61	부산 남구 대연동	부산에서 태어나 결혼, 슬하 2남
금경량	81	경북 봉화 몰야면	봉화에서 태어나 결혼, 슬하 5남 3녀
이용순	82	경북 영양 영양읍	안동에서 태어나 영양으로 시집, 슬하 1남
금경자	67	대구 동구 신천동	봉화에서 태어나 영양으로 시집, 현재 대구 거주, 슬하 2남 2녀
이점옥	61	대구 서구 평리동	군위에서 태어나 영천으로 시집, 현재 대구 거주, 슬하 1남 2녀

조사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sup>3)</sup>으로 해당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였다. 임신·출산에 관련된 어휘 조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질문지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명하기 어려운 어휘는 사진을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어휘 항목을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여 해당 어휘의 하위 항목 어휘까지 수집하였다. 또한 비디오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사용하여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임신·출산에 관한 연구는 민속학과 문화인류학을 중심으로

2) 제보자의 나이는 조사를 처음 시작한 해인 2009년을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3)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사람들의 삶을 그들 자신의 시각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자신의 체험의 맥락에서 배우려는 특별한 방법론이다. 민속지적 방법의 공통적인 특징은 장시간 필드워크를 필요로 하는 참여적 관찰이 강조되는 것과 일상연구에 관련된 소규모 단위의 연구에 많이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속지적 연구 방법은 반복적이고 귀납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며, 조사 현장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문화적인 맥락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경청하며, 질문을 제기하여 대화를 풍부하게 이끌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루어져 국어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사업에서는 ‘육아’에 관련된 어휘에서 ‘입덧, 갓난아이, 아우타다, 계집아이, 사내아이, 쌍둥이, 기저귀, 포대기’ 등 8개 항목이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로 나타나고 있다<sup>4)</sup>. 또한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방언자료집Ⅶ, Ⅷ』 경상남·북도 지역편을 보면 ‘육아’에 관련된 범주에서 ‘갓난아이, 동, 어린애, 여자아이, 남자아이, 기저귀, 포대기’ 등 7개 항목이 조사되어 있고, ‘인체’ 관련 범주에서 ‘배꼽’ 어휘가 조사되어 있다<sup>5)</sup>. 임신·출산에 관련된 국어학적인 조사가 15개의 어휘 조사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를 통해 임신·출산에 관련된 여러 범주의 어휘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

우리나라는 남계(男系)를 중심으로 가족제도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결혼한 여성이 남아를 낳아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책임처럼 여성을 따라 다녔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집안에서 쫓겨나가거나 다른 여성을 아내로 맞아도 별 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던 시대도 있었다. 이처럼 여성들의 삶에서 ‘아들 낳기’는 중요한 숙제거리였지만 아이의 성별을 임의로 고를 수 없는 문제였으므로 여성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했고 거기서 다양한 기자 의례 풍속이 나타났다. ‘기자(祈子)’란 표준국어대사전에 아들 낳기를 기원함 또는

4) 국립국어원(2006), 『지역어 조사 질문지』, pp.334-351, 참조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한국방언자료집 Ⅷ』, pp.89-128, 참조

그런 풍속을 말하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다. 아들을 원하는 부인이 산천(山川)이나 신에게 빌거나 아들을 낳은 산모의 옷을 얻어 입는 일 따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임신에 대한 기자의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영험한 대상에게 비는 것’과 ‘아들을 잘 낳는 여성의 기운 빌기’ 등이 그것이다. 영험한 대상에게 비는 것을 ‘치성기자’라 하고, 아들 잘 낳는 여성의 기운을 비는 것은 ‘주술기자’에 포함된다.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에 관한 조사에서는 조사 어휘를 기자 대상과 기자 행위에 대한 어휘로 분류할 수 있었다.

## 1. 기자 대상

여성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 찾은 영험한 기자 대상은 명산, 대천, 거암, 거목 등 자연물과 ‘지양’ 또는 ‘삼신’<sup>6)</sup>과 같은 가신(家神)<sup>7)</sup>이 있다. 여성들은 영험한 대상에게 정성을 다해 3일 기도, 7일 기도, 백일기도, 또는 정해진 날에 기도를 드렸다.

제보자들은 기자의 대상을 ‘삼신’을 많이 얘기하였는데 ‘삼신’은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보는 세 신령을 말한다. 이 삼신이 할머니 모습을 하고 있다는 데서 ‘삼신할머니’라는 말을 쓰는데 경상도에서는 ‘삼신할머니’를 ‘삼신할마이, 삼신할매, 삼신할마님’이라 표현을 하고 있었다. 삼신 이 외에도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으며, 정성을 다해 100일

6)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보는 세 신령. ≡산신02(産神)·삼신령·신09(神)『4』·제왕02(帝王).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7) ‘가신’은 집을 지키며 집안의 운수를 좌우하는 신. 성주신, 터주신, 조상신, 삼신, 조왕신(寵王神), 문신, 업신, 축신(廁神) 따위가 있다. ≡가택신(家宅神).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기도를 많이 올렸다고 한다. 조선왕실에서도 이러한 기자 행위가 있었음을 『명종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종 18년(1563) 12월 2일의 기록에 “대전(大殿)에서 환관을 몰래 외부로 보내 영험이 있는 산천에 가서 초제(醮祭)를 지내어 아들 낳기를 빌고, 또 사전(祀典)에 기록되지 않은 산천, 구릉, 천정(泉井) 중에서 영험이 있는 곳을 찾아 보고하게 하였다”는 것이 있다. 초제는 일월성신에게 제사를 지내 소원을 비는 행위이다. 적어도 임진왜란 이후 소격서(昭格署)가 폐지되기 전까지 도교적인 종교의례가 왕실의 아들 낳기 풍속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sup>8)</sup>.

## 2. 기자 행위

기자 행위는 기자 대상에게 치성을 다하는 방법과 아들을 잘 낳는 여성의 기운 빌기에 관련된 행위가 있다. 기자 대상에게 치성을 다하는 방법에는 초하룻날에 상을 차려놓고 가신에게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 빌거나 시어머니가 대신 빌기도 하였다. 그리고 산이나 강 등 자연물을 찾아가 빌기도 하였다. 이런 방법 외에도 아들을 잘 낳는 여성의 속옷을 빌려 입고 다니거나 그 여성의 물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등 아들을 잘 낳는 기운을 빌려는 행위를 하였다.

제보자들의 이야기처럼 기자 대상에게 음식을 차려놓거나 물을 떠 놓고 빌기도 하고 아들을 금방 출산한 여성과 함께 산후 조리를 한 여성도 있었다고 한다. ‘피옷 입고 진자리 앉아 미역국 먹다’는 아기를 가지기 위한 기자 행위의 하나로 아들은 낳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하는 자리에서 함께 산후조리를 하면 아기를 원하는 여성도 아들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외에도 산모가 출산 시 입은 피옷을 빌려 입어도 아기를 가질 수

8)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실의 출산문화』, 이회문화사, 2005, p.19, 참조.

있다고 믿었다. 여기서 ‘피옷’은 산모가 출산할 때 입는 옷으로 출산 시 아기가 나올 때 그리고 태반이 나올 때 피도 같이 나오는데 이 때 산모가 입는 옷에는 피가 묻는다. 그래서 피옷은 검은 치마나 쪽물 들인 옷을 많이 입었다고 한다. 산모가 출산 시 입는 옷을 ‘피옷’이라 하는데 이는 출산 시 피가 묻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진자리’는 ‘아이를 갓 낳은 그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아이를 낳는 자리는 방을 따뜻하게 하고, 아이를 낳으면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출산 자리는 땀이 많이 묻어 있어 진자리가 되는 것이다.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에 관해 조사된 어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기자 대상과 기자 행위

기자 대상	기자 행위
삼신, 삼신할마이/ 삼신할마님/ 삼신할매, 부처님	백일기도 하다, 음식 차려놓다, 물 떠놓고 빌다, 피옷 입고 진자리 앉아 미역국 먹다, 피옷 빌려 입는다

#### IV. 임신 · 출산 준비물

임신을 하고 출산이 다가오면 출산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어두는데 여기에는 아기를 위한 준비물과 임신부를 위한 준비물, 출산 과정을 위한 준비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조사된 어휘에는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어휘에도 지역별 차이가 있는 어휘가 많이 나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어휘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 1. 아이를 위한 준비물

아기를 위한 준비물로 대표적인 것은 배넛저고리와 기저귀, 포대기 등이

있다. 이것을 지칭하는 어휘가 경상남도과 경상북도가 조금씩 달랐으나 물질이 풍요롭지 않은 시기에 임신, 출산을 한 할머니들은 특별히 아기를 위한 물건을 준비하기 보다는 쓰던 물건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1) 배넛저고리/이란저고리

깃과 셔를 달지 않은 갓난아이의 옷을 ‘배넛저고리’라 한다. ‘깃저고리, 배내옷’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보자들은 ‘배넛저고리, 저고리, 애기저고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경북의 제보자들은 배넛저고리를 ‘이란저고리’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배넛저고리는 면사를 사용하여 평직 또는 능직으로 짠 후 보풀이 일게 한 직물로 만들어 촉감이 부드러운데 경남의 제보자는 이를 ‘담, 담배’라고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담’은 ‘짐승의 털을 물에 빨아 짓이겨 평평하고 두툼하게 만든 조각. 담요 따위의 재료로 쓴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보자는 부드럽고 폭신평신했던 솜과 같은 면으로 된 천을 담배라 하였다. 보드라운 면으로 배넛저고리를 만들거나 따로 천을 준비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어른들이 입던 얇고 험 옷을 뜯어가지고 배넛저고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 2) 기저귀/ 기주개

어린아이의 똥오줌을 받아 내기 위하여 다리 사이에 채우는 물건을 ‘기저귀’라 하는데 천이나 종이로 만든다. 제보자들은 기저귀라는 어휘와 함께 ‘기저구, 기주개, 기저기’라는 경상방언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경북의 제보자들은 ‘기저구, 기주기’라는 어휘를 사용하였고, 경남의 제보자들은 기저귀와 함께 ‘기주개’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기저귀는 부드러운 면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없던 시절에는 헌 옷 떨어진 것으로 준비했으며 이나마도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로 바로 바로 돌려 가며 사용하였다고 한다. 기저귀는 고무줄을 이용해 ‘앞 고무줄을 매 가지고 치웠다(채웠다)’고 한다. 따라서 기저귀는 ‘기저귀 치우다(채우다), 기저귀 차다’ 형식의 연어로 많이 표현하였다.

‘기저귀’의 경남방언에는 ‘계주기, 기저기, 기절기, 기조기, 기주게, 기지기, 기지리, 사빠, 사과, 사뚜디기, 살깃, 지저기’ 등의 어형이 있다.

### 3) 포대기/애기이불/어울대

어린아이의 작은 이불을 포대기라고 하는데 이는 아이가 덮고 깔거나 어린아이를 업을 때 쓴다. 포대기의 모양은 요즈음 것처럼 직사각형의 네 모퉁에 위쪽 귀퉁이에 긴 끈이 두 개 달린 모양이 있고, 더운 여름에 쓰는 형태는 긴 직사각형 모양의 네모 천에 네 쪽 귀퉁이에 모두 긴 끈이 달린 형태가 있다. 포대기에 관련된 어형은 지역별로 달랐으며, 형태에 따라서도 여러 하위 범주의 어휘가 조사되었다.

경남에서는 포대기를 ‘애기이불, 이불, 어울대’라고 한다. 애기이불은 요즘 포대기와 형태가 같은 것으로 ‘이불’이라 하기도 한다. 여름에는 이것을 간소화시킨 ‘어울대’가 있다. 어울대는 여름 포대기를 다르게 이르는 말로 아기 몸에 닿는 천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도 업을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만든 것으로 긴 직사각형의 몸통에 네 귀퉁이에 긴 끈을 달아 아기를 업고 아래, 위로 묶어 아기를 업었다. 경남 의령에서는 겨울에 쓰는 포대기를 이불이라 하였고, 여름에 쓰는 것은 ‘어울대’라고 하였다. 제보자는 ‘업을 때는 쓰는 것’이라서 ‘어불대, 어울대’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어울대’는 ‘/업-/+/-을-/+/대/’ 구조의 합성어로 볼 수 있다.

경북에서는 아기를 엮는 포대기를 ‘두대개, 두디기, 띠, 애기띠, 띠개’로 부르고 있었는데 겨울에는 ‘두대개, 두디기’를 여름에는 ‘띠, 띠개, 애기띠’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애기띠는 경남의 어울대와 같은 모양이다. 포대기는 경상도에서는 ‘끼리다, 끼린다’라는 동사와 연어 구조를 취하고 있어 ‘포대기로 엮다’를 ‘두대기 끼린다’라고 표현한다.

## 2. 임신부를 위한 준비물

임산부를 위한 대표적인 준비물에는 ‘피옷’이 있다. ‘피옷’은 산모가 출산할 때 입는 옷으로 출산 시 아기가 나올 때 그리고 태반이 나올 때 피도 같이 나오는데 이 때 산모가 입은 옷에는 피가 묻는다. 그래서 피옷은 검은 치마나 쪽물 들인 옷을 많이 입었다고 한다. 산모가 출산 시 입는 옷을 ‘피옷’이라 하는데 이는 출산 시 피가 묻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 할 수 있다.

‘피옷’은 임산부를 위한 출산 준비물이기도 하지만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아들을 출산한 여성에게 빌려 입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산모를 위한 준비물은 미역, 쌀이 있는데 아기를 낳고 나면 바로 쌀과 미역을 가지고 산모가 먹을 국밥을 준비한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산모가 출산 할 때 삼신상을 차려 윗목에 놓아두고 삼신에게 아이를 순산하기를 기원하는데 이 때 삼신상에 차리는 것이 미역과 쌀이었다고 한다. 삼신상에 올린 것은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 먹는 국밥의 재료로 사용한다고 한다.

## 3. 출산 과정을 위한 준비물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가위, 실, 소구리, 덩기 등이 있다. 가위와 실은 아이의 탯줄을 처리하는 데 필요하고, 소구리, 덩기는 출산 후 나

오는 태반의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위로 탯줄을 자르고 실로 자른 부위를 묶는다. 그리고 조금 후 자궁에서 태반이 나오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덩기(등겨)를 넣은 소구리(소쿠리)에 담아 3일 간 보관하였다가 처리하였다고 한다.

### 1) 가위와 실

일반적으로는 가위로 탯줄을 자르고 실로 자른 부분을 묶지만 조사에서 ‘귀한 자식은 연장 안 댄다’고 하여 가위로 탯줄을 자르지 않고 아이 아버지가 이빨로 탯줄을 자른다고 한다. 가위 외에도 낫으로 자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가위’의 경남방언에는 ‘가세, 가이, 가사, 가세, 가새기, 가새개, 가시, 가시개, 가시계, 가애, 강애짜, 파알’ 등의 어형이 있다<sup>9)</sup>.

제보자는 ‘실’을 ‘실꾸리’라는 방언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고 ‘실꾸리로 재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실로 잡아매다’의 경남방언이다. 방언검색 프로그램에는 ‘실꾸리’가 ‘실’의 전남방언으로 나와 있지만 경남의 제보자들도 ‘실꾸리, 실꾸리’ 어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실꾸리’는 실꾸러미를 이르는 말로 ‘실’을 의미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2) 등겨와 소쿠리/덩기와 소구리

출산 후 태반이 나오면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보관 후 버린다고 한다. 보관하는 방법은 곡식을 벗겨낸 등겨를 소쿠리에 담아서 그 안에 태반을 묻어 두었다가 강에 버리거나 불에 태웠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9) 국립국어원의 한민족언어정보화 사업의결과물인 방언검색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어휘의 방언형을 제시하였다.

말렸다가 가루를 만들어 약으로도 사용하였다고 한다. ‘딩기’는 등겨의 경남방언으로 벼, 보리, 조 따위의 곡식을 찧어 벗겨 낸 껍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표 4】 임신·출산 준비물

분류	관련 어휘		
아이를 위한 준비물	배냇저고리	배냇저고리, 애기저고리, 저고리, 이란저고리	
	기저귀	기저귀, 기저구, 기저기, 기주개	
	포대기 <sup>10)</sup>	경북	두대기, 두디기, 띠, 애기띠, 띠개
경남		애기이불, 이불, 어울대	
임산부를 위한 준비물	피옷, 쌀, 미역		
출산 과정을 위한 준비물	가위, 실/ 실꾸리 등기(등겨), 소구리(소꾸리)		

## V. 임신·출산 관련 금기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지켜야할 여러 금기 사항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임신, 출산에 관한 생활 어휘에서 금기에 관한 말이 많았고 금기는 출산 전 금기, 출산 후 금기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음식 관련 금기와 행위 관련 금기로 나눌 수 있다. 임신, 출산에 관한 금기 사항은 허준의 『언해태산집요(1608)』에도 나오고 있다<sup>11)</sup>.

10) 조사된 어휘 중 경북과 경남에서 차이를 보이는 어휘는 지역을 구분하여 관련 어휘를 제시하였다. ‘포대기’를 경북과 경남의 사용 어휘가 확연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11) 부인대전에 이르기를 자식 뱃 후에 태(뱃속 아이)를 죽인 곳을 가장 피하고, 집을 고치는 이웃집에 놀러 가는 것 또한 금기하라. 경에 이르기를 칼을 쓰면 아이의 얼굴에 반드시 뱃 상처가 있고, 흙을 쓰면 아이의 구멍이 막혀 나고, 다른 사람을 치면(타격하면) 아이의 얼굴빛이 푸른색으로 난다. 또 끈으로 묶으면 아이가 오그라져서 나오니 삼가지 아니할 수 없다.

## 1. 출산 전 금기

임신을 하고 출산하기 전 까지 지켜야 할 금기 사항에 관한 것이다. 임신을 한 여성은 그 이전 보다는 행동에서 조심을 많이 하는데 이는 자신은 물론 뱃속에 태아를 보호하고 예쁜 아이를 낳기 위한 태교의 일부였다. 출산 전 금기 사항은 음식 금기와 행위 금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1) 음식 금기

임신을 하면 먹는 것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 태아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태아에게 더 영양가 있고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 산모는 금기 사항을 임신 기간 동안 철저히 지켰다.

가<sup>2)</sup>. 오리알로 무면은 아 손 붙는다 카고, 이래이래 한테 붙어버리. 이래 붙더라고요, 이래 문 사람이 붙더라. 그래. 붙기도 하고, 챙이 저런 거로 집으로. 옛날에는 저 지금. 식육점 하는 거로 그 전에는 백정놈이라 쟤거든.

나. 오리. 오리고기 먹으면 애 손발이 이래이래 오리 맨치.

다. 상가집 음식 그런 것도 잘 안 먹고

라. 제사. 제사도 너므 제사는 잘 안 묵고 막 저거 제사는 묵고

마. 제사음식은 가져 왔는 것도 먹지. 안 먹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테요.

---

또 이르기를 말고기, 나귀고기, 개고기, 토끼고기, 양의 간, 새고기, 자라고기, 달걀, 오리알, 비늘 없는 물고기, 게, 생강의 싹, 파, 마늘, 울무, 보리기름, 비름, 도인, 마른 생강, 호초를 먹이지 말라.

부인대전에 이르기를 자식 뱀 계집이 옷도 너무 덥게 입지 말고, 밤도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말며, 술도 가장 취하게 먹지 말고, 탕약을 마음대로 먹지 말고, 이부자리를 마음대로 말며, 무거운 것을 들고, 높은 곳 오르며, 험한 곳 건너기를 말며, 오래 누워 자기 말며, 때때로 거닐고, 아이 낳을 달에 머리 감지 말라. 허준, 『언해태산집요』, 1608.

12) 필요한 경우에는 제보자들의 구술 발화 내용을 채록하여 수록하였다. 해당 어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연관된 내용을 이해하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바. 남으 해도 별로 먹고 싶지. 남으, 남으꺼가 별로 먹고 싶더라 나는.

임신 기간 음식금기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금기에는 오리에 관련된 금기가 많았다. 오리 고기나 오리 알을 먹으면 오리를 닮아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가 붙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임부가 오리 고기를 먹는 것을 금했다. 이는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러면서도 요즈음도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금기 사항이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엄마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 아이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특히나 생김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금기 중 하나이다.

또한 부정 타는 음식은 먹지 않았는데 상갓집 음식이나 제삿집 음식은 먹지 않았다. 임부가 상갓집 음식이나 제사 음식을 먹으면 부정을 타서 임부가 아프거나 태아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먹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은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임부가 상가나 제사에 가는 것도 금하였다. 그리고 임부는 남의 음식도 먹지 말라고 금하였다. 남이 것을 훔쳐서도 안 되고 허락 없이 남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는데 이는 태교의 하나로 뱃속의 아이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행위 금기

임신을 하면 임부는 행동에서도 많은 금기 사항이 생긴다. 행동에 관한 금기는 뱃속의 아이를 열 달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과 엄마의 행동이 태아의 생김새나 품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가 있다.

가. 말 잎가리 넣노면 열두 달만에 나온다 그러고.

나. 상갓집 음식 그런 것도 잘 안 먹고 잘 가지도 안 했고.

다. 임신하기 전에 뭐 짐승 같은 거 잡으마 거 인자 벌 받아가지고 자식이  
 나는 게 그 나쁜 게 난다고 그래 못하게 했지  
 라. 초상난 데 그런 데 가지마라고 부정하다고.  
 마. 담도 뛰넘지 마라 칸다.  
 바. 돌담 이래 해노면 울타리 구렁에도 빠지지 말고 빠져나가지 말고 담도  
 뛰넘지 마라.  
 사. 쌀하고 미역하고는. 인자 고 낳기 전에 꼭 준비해 놔야 돼. 고래 준비해  
 왔다가 애기를 낳으면 저 국밥을 미역을 끓이야 되거든. 미역을 준비.  
 아. 챙이 저런 거로 집으로 옛날에는 저 지금. 식육점 하는 거로 그 전에는  
 백정 놈이라 쟤거든.

① 말 잎가리 넣노면 열두 달만에 나온다

‘말 잎가리 넣노면 열두 달만에 나온다’는 임신 중 행위 금기로 임부가  
 말이 먹는 짚을 만지거나 마구간에 짚을 넣어주면 아기가 열두 달 만에  
 나오므로 짚을 만지지마라는 금기이다. 짚을 만지지 말라는 금기는 짚이라  
 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임신을 하면 집안일, 농사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  
 이다. 이는 임부가 일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게 하는 일종의 배려일 수도 있  
 다고 한다.

② 챙이 집으로 백정놈 나온다

임신 중에 임부가 키를 잡으면 백정을 낳는다는 말이다. 그 근거는 모  
 르나 임신 중에 임부가 키를 집으면 자식이 백정과 같은 천한 사람이 되므  
 로 키를 만지지 말라는 금기이다. ‘챙이’는 ‘키<sup>13)</sup>’의 경남방언이다. 임부의  
 행위 금기에는 집안일, 농사일에 관련된 금기가 있는데 이는 산모로 하여  
 금 집안일을 덜 하라는 일종의 배려일 수도 있다고 한다.

---

13) 곡식 따위를 까불러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 키 버들이나 대를 납작하게  
 찌개어 앞은 넓고 평평하게, 뒤는 좁고 우긋하게 엮어 만든다.

③ 초상집, 상갓집에 가지 마라

임신 중에 임부나 가족이 상가나 제사에 가면 아거나 임부가 부정을 탈 수 있으므로 상가에 가지마라는 금기이다. 상가나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상가나 초상집 음식도 금하였다.

④ 짐승 잡으면 벌 받는다

임신 중에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생명을 해치면 아거나 임부가 부정을 탈 수 있으므로 임부는 물론 가족들도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는 금기이다.

⑤ 담 뛰 넘지 마라

임신 중에 임부가 담을 뛰어넘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임부가 아기를 유산할 수 있으므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금기이다. 이는 열 달 동안 뱃속의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금기이다.

⑥ 울타리 구멍에 빠지지 마라

임신 중에 임부가 울타리 구멍에 빠지면 임부가 아기를 유산할 수 있으므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금기이다. 이는 열 달 동안 뱃속의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금기이다. ‘구영’은 ‘구멍’의 경남방언이다.

⑦ 미역은 지달에 사놓아야 된다

출산을 위한 준비물인 미역은 미리 사두지 말고 아기가 태어나는 달에 사 놓는다. 미역을 미리 사두면 귀신이 시샘해서 태아가 부정 탈 수 있으니 아기가 태어나는 달에 사야 아 한다는 금기이다. ‘지달에 사다’는 ‘태어나는 제 달에 사다’라는 의미이다.

2. 출산 후 금기

임부가 출산을 하고 나더라도 얼마 동안은 지켜야할 금기가 있다. 출산

후 금기도 출산 전 금기와 마찬가지로 입부와 아이를 보호하려는 의미가 강하고 또한 산후 임신부의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려는 목적에서의 금기가 많이 있다.

### 1) 음식 금기

산모는 출산 후에도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했다.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므로 가려야 하는 것도 있었고,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도 있었다.

산모가 딱딱한 음식이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이가 상하므로 딱딱한 것이나 차가운 것을 먹지마라는 금기가 많았다. 제보자들은 출산 후에는 출산의 고통으로 이나 잇몸도 약해진 상태이므로 이런 상태에서 이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이 후에 이가 망가진다고 한다.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도 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가 빠진 여성이 많았다고 한다.

출산 전과 마찬가지로 3일 간, 7일 간 상갓집 음식이나 제사 음식은 피했다. 특히 출산 후 3일 동안은 ‘삼일 부정’이라고 해서 가족들도 상갓집 음식을 먹거나 제사 음식을 먹고 집에 오는 것을 금했다고 한다. 삼일 부정은 아이가 태어나면 3일 동안은 연약한 아이가 건강을 잃거나 죽는 따위의 부정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를 이르는 말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바깥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3일 간 부정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산모가 매운 음식을 먹는 것도 금했다. 산모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매운 기운이 젖으로 가 모유를 먹는 아이가 젖을 작 안 먹거나 젖을 먹여도 매워서 울거나 아이가 설사를 하는 등 탈이 난다고 한다. 그래서 산모는 아이에게 젖을 먹일 동안은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아이에게 먹기

편한 짓, 좋은 짓을 먹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 가. 딱딱한 거 묵으면 이 다 나간다.
- 나. 매븐 거 먹으면 아가 울고
- 다. 찹은 것도 묵으면 안 된다.
- 라. 아 놓고도 상가집 음식 그런 것도 잘 안 먹고
- 마. 제사. 제사도 너므 제사는 잘 안 묵고 막 저거 제사는 묵고

## 2) 행위 금기

### ① 귀한 자손 연장 대 끊지 마라

출산 후 행위 금기 중 하나로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을 끊어야 하는데 귀한 자식을 얻었을 경우에는 쇠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귀한 자손이 태어났을 경우 가위나 낫 등의 쇠로 만든 도구를 이용해 탯줄을 끊지 않고 아기 아버지라 이빨로 끊었다고 한다.

### ② 초상난 데 가지마라, 상가에 안 간다

출산 후 행위 금기 중 하나로 출산 후에도 상가나 제삿집에 가는 것을 금했다. 산모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상가나 제삿집에 가면 부정을 탈 수 있는데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 3일 동안은 엄격히 지켰다고 한다. 이는 ‘삼일 부정’을 막기 위함인데 그만큼 새로 태어난 생명을 외부의 여러 기운으로부터 지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시키려고 주변의 사람이 노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가족 중 누구라도 이 금기를 어기면 아기가 이유도 없이 계속 울거나 아프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어떤 제보자는 주변의 사람이 삼일 부정을 지키지 않아서 아이가 갑자기 병어리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모두 가족이나 산모가 삼일 부정 기간에 행동을 조심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다.

- 가. 그 옛날에 그랬다. 귀한 자손 연장 대 끊지 마라 그랬잖아.  
 나. 삼일부정이 그제 젤 무서운 기래. 삼일. 삼일을 저게 뭐야. 어데 나쁜데  
 갔다 와도 안 되고 어데 초상집 그튼데 갔다오면은. 부정 타가지고. 애  
 먹는다.  
 다. 그래 짐 이 집에 만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거 크 아 초칠도 안 갔는데  
 세상에 금방 집에 어마이가 어데 저게 뭐로. 초상집이라던가. 어데 뭐  
 가. 어데 가. 그래고 세상에 들어왔더란다. 그래가 고 고마 아가 그래  
 그 병이 저가 아가 버버리아이가. 버버리 된. 그래가 어마이 그래 이야  
 기를 하면서.  
 라. 초상난 데 그런 데 가지마라고 부정하다고.  
 마. 상가집 음식 그런 것도 잘 안 먹고 잘 가지도 안 했고.

이상으로 임신, 출산에 관련된 금기를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는 다시 하위 분류인 음식 금기와 행위 금기로 나누었다. 관련 어휘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임신·출산 관련 금기

분 류		관련 어휘
출산 전 금기	음식 금기	오리알로 무면 아 손 붙는다, 제사 음식 안 먹는다 오리고기 먹으면 손발이 오리처럼 된다, 남으 해 먹으면 안 된다 너므 제사 잘 안 묵고 저거 제사는 묵는다
	행위 금기	챙이 짐으로 백정놈 나온다, 말 앞가리 넣노면 열두달만에 나온다 초상집에 가지마라, 상갓집에 가지 마라, 짐승 잡으면 벌 받는다 담 뛰넘지마라, 울타리 구멍에 빠지지마라 미역은 지달에 사놓아야 된다
출산 후 금기	음식 금기	매븐거 먹지 마라, 찰은 것도 묵으면 안 된다. 상가집 음식 먹지 마라, 제사음식 먹지 마라 딱딱한 거 묵으면 이 다 나간다.
	행위 금기	귀한 자손 연장 대 끊지 마라, 삼일부정이 제일 무섭다 남편도 너므 상가집 가모 안 된다, 초상난 데 가지 마라 상갓집 음식 그런 것도 잘 안 먹고 가지도 마라

## VI. 임신·출산 관련 속설

임신, 출산에 관련된 속설도 많이 조사되었는데 임부를 보고 태아의 성별을 가늠하는 속설이 가장 많았으며, 유산에 관련된 속설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산모의 배 모양을 보고 태아 성별을 구별하는 속설이 많았는데 딸은 배 모양이 바가지를 엮어놓은 것처럼 볼록 튀어 나왔고 아들은 배 모양이 평평잡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유산에 관련된 속설은 유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과 원치 않은 임신으로 유산을 하기 위한 속설로 나눌 수 있었다.

### 1.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

임신을 하면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열 달 동안 궁금한 일이다. 특히 아들 낳기를 원하는 임부일 경우에는 한 시가 급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속설 중에는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이 가장 많았다. 출산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경험담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산모의 배 모양을 보거나 산모의 행동을 보고 유추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산모의 배 모양을 보고 성별을 추측하는 경우가 많았다. 태아의 성별에 관한 이야기는 ‘언해태산집요’(허준, 1608)에서도 나와 있는데<sup>14)</sup> 아래의 속설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14) 맥경에 이르기를 계집이 잉태하였거든, 사람으로 하여금 배를 만지게 해서 배가 잔엷은 듯하면 사나이이고, 팔 곱은 곳같이 험하면 계집이라. 자식 뱀 계집이 뒷간에 들 때에, 남편이 뒤에서 빨리 부르면 왼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것은 사나이이고, 오른쪽으로 머리 돌리는 것은 계집이라.

고급의감에 이르기를 겨집이 자식 배어서 왼 젖에 망울이 있으면 사나이이고, 오른 쪽에 망울이 있으면 계집이라. 허준, 『언해태산집요』, 1608.

### 1) 임부 배의 모양

성별에 관한 속설 중 가장 많은 것은 임부 배의 모양을 보고 태아의 성별을 가늠하는 것이다. 임부 배 모양이 바가지를 엮어 놓은 것처럼 볼록하고, 커다랗게 부풀어 배만 툭 튀어 나온 것처럼 보이면 딸이고, 배 모양이 평퍼짐하고 배 부분이 특별히 표 나지 않고 두리두리하면 아들이라고 생각하였다. 딸을 가지면 배 부분이 바가지를 엮어놓은 것처럼 볼록하게 튀어 나왔으므로 치마를 입어도 커다랗게 부풀어 표시가 많이 났다. 하지만 아들을 가지면 배 모양이 딸에 비해 배가 많이 튀어 나오지 않고 평퍼짐해서 치마를 입으면 배 나온 것이 잘 표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 가. 바가지 엮어는 거는 딸이고, 좀 평평하면 아들이고 그렇다. 사람.
- 나. 뒤에 치마가 쪼름 하모 딸이고 축 처지모 스스마.
- 다. 치마자리가. 치맛자락을 보고 뒤에. 뒤에 인제 커다란 게 부풀모 딸이고 축 처지고 뒤에 막. 아들.
- 라. 저거 옛날 어른들은 딸이른 배만 툭 튀어 나오고.
- 마. 아들이면 허리가 두리두리 하고.
- 바. 아들은 모양이 사람도 막 두리두리 하이 아래위가 없는 글은 기. 그래.

### 2) 아이의 위치

아이의 위치에 따라서도 태아의 성별을 추측할 수 있었다. 딸은 엄마 배꼽 바로 아래에 있어서 임부의 배에서 조금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임부들이 숨쉬거나 행동하기가 아들에 비해 조금 수월하다고 한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의 가슴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딸보다는 숨쉬기도 힘들고 행동하기도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제보자들은 ‘아들이며 디다(아들이면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이의 위치 때문이다.

가. 아들은 조금 디기 이래 요, 디기 요 다자면 울로 올릿뿌고 이 딸은 조금 나직하이 붙는.

나. 우리가 인자 낳고나서 싹 이거로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은 아들인께 좀 디더라. 딸은 쪼게 낫더라.

다. 가슴 밑에 딱 땃채면 아들이고, 여 밑에 여기 알로 이래카모.

라. 응, 아들이면 여 치이. 치이. 치 올라채고.

### 3) 임부의 행동

임부의 행동을 보고도 태아의 성별을 추측할 수 있었다. 임부가 앞서 가는데 뒤에서 임부를 불러 임부가 왼쪽으로 돌아보면 아들이고,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딸이라고 한다. 이런 추측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임부의 행동에 관한 것은 이 밖에도 고기류를 많이 먹으면 아들이고, 과일, 채소를 많이 먹으면 딸이라고 하는 속설도 있다.

가. 임신 되가 걸어가는 걸 뒤에서 누가 부르잖아. 부르모 원고개를 이래 돌다 보모 그계 아들이라데.

### 4) 기타

임부의 배꼽을 눌러 보고도 태아의 성별을 추측할 수 있었다. 배꼽을 눌러 배꼽이 쑥 들어가고 배꼽 아래에 만져지는 것이 없으면 아들이고, 배꼽을 눌러도 단단해서 잘 들어가지 않으면 딸이라고 한다. 이는 내용 중 태아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아들은 엄마 가슴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배꼽 부분을 눌렀을 때 잘 들어가지만 딸을 엄마 배꼽 아래에 위치해 있으므로 배꼽 밑이 단단하게 받치는 것이다.

또한 출산을 알리는 이슬의 색을 보고도 태아의 성별을 추측할 수 있다

고 한다. 이슬이 붉은 색이면 아들이고, 흰 색이면 딸이라고 한다.

가. 아들은 이거 배꼽이 높어 있어도 배꼽이 쑥 드가고 여기 배가 여기 잘  
딸은 꼭 여기 머리가 여 받친다.

나. 머리가 요래 땡땡하게 받아. 둘 누우모 놀루믄 배꼽이 쑥 드간다 카데.  
난 그래 난 그래 짐작했어. 알아. 배꼽이 쑥 드가. 아들은.

다. 한 삼일 전에 이슬 비취가지고 그제 이슬이가 붉으믄 아들이고 흰 건  
딸이라 한 이도 있고.

이밖에도 태아의 성별에 관한 속설에는 임신선, 유두색깔에 관한 것도 있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배꼽 아래에 임신선이 생기는데 이 임신선이 진하고 일자 모양으로 쭉 이어지면 아들이고, 딸은 아들에 비해 임신선이 진하지 않고 일자선이 아니라 중간에 선이 끊어진다고 한다.

## 2. 유산에 관한 속설

임신, 출산에 관한 속설 중에는 유산에 관한 속설도 조사되었다. 유산에 관한 속설은 유산 방지책이 많았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유산을 위한 속설도 있었다.

### 1) 유산을 막기 위한 속설

#### ① 은가락지 삶은 물 먹기

임부가 유산기가 있으면 시어머니나 주변 사람이 임부가 끼고 있던 은가락지를 물에 삶아 삶은 물을 먹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제보자는 은가락지라고 하였는데 그냥 ‘가락지 삶은 물 먹는다’고 말한 제보자도 있었다. 이렇게 가락지 삶은 물을 먹는다는 예방책은 경북과 경남이 같았다.

가. 애. 애기 떨어졌는가잉. 떨어징게네. 애기 떨어질까 싶어서 옛날에는  
은가락지 그거를 삶아가지고 먹었거든. 애기 저 떨어지지 말라고.  
나. 어른들 그랬어. 그거 양밥이라면서. 가락지 삶아 맥였고.

## ② 깐대기 날 수대로 먹기(수제비 날 수대로 먹기)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속설에는 ‘깐대기 먹기, 수제비 먹기’가 있다. ‘깐대기’는 ‘수제비’의 경북방언으로 임부가 유산의 기미가 보이면 수제비를 끓여 먹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수제비를 자기 나이 수대로 건져먹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유산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가. 깐대기를. 깐대기를 또 날 수 대로 해 여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맥이주데.  
나. 아. 수제비 먹어가 아가 올라 붙는다고.  
다. 수제비. 수제비 글이 고걸 요래요래. 나 수 대로 수제비라.

## 2) 유산을 위한 속설

임부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였을 때는 유산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날처럼 산부인과에서 유산을 하는 것이 사정상 어려웠기 때문에 유산을 하기 위한 속설도 있었으며 이런 속설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가. 잣물도 약간 목고 이런 거 같은데.  
나. 농약도 쪼깨 목고

유산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위험한 방법을 썼다. 빨래 할 때 쓰는 양젓물<sup>15)</sup>을 약간 먹거나 농약을 조금 먹기도 하였는데 이는 독한 것을 먹어서

---

15) 짚이나 나무를 태운 재를 우려낸 물. 예전에 주로 빨래할 때 썼다.

뱃속의 태아를 없애려고 찾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간장을 마시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거나 언덕에서 구르는 방법 등이 있었는데 이는 산모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다.

### 3. 기타 속설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 유산에 관한 속설 이 외에도 여러 속설이 조사되었는데 출산 과정에서 임부의 출산을 돕는 방법, 예쁜 아이를 낳기 위한 방법, 동생의 성별을 예측하는 방법, 기타 등이 있었다.

#### 1) 임부의 출산을 돕는 방법

임부가 출산을 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두려운 일이다. 순산을 하면 다행이지만 난산일 경우에는 산모나 태아에게 모두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부의 출산을 돕기 위한 방법에 관한 속설이 많이 있었다.

산모가 화장실에 가서 아기를 낳으면 빨리 나온다고 한다. 이는 화장실에 가서 앉는 자세가 아기가 잘 나오는 자세이고, 그런 자세에서 힘을 주면 아기 낳기가 조금 수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기가 잘 나오지 않으면 남편이 산모의 배를 타 넘거나 이웃에 아이를 잘 낳은 여성이 산모의 배를 타 넘으면 아기가 빨리 나온다고 한다. 남편이 배를 타넘거나 남편의 옷을 산모의 배에 덮어주거나 남편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산모 발에 붙여도 아기가 잘 나온다고 한다. 이는 출산 시 임부에게 심리적으로 남편과 함께 하고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쥐구멍 같은 집 안의 구멍을 모두 트면 아기가 구멍으로 잘 나온다는 속설도 있었다.

가. 산과도 엄포 할 때는 거 간다 안카나. 화장. 화장실에 가서 나오면은

빨리 나온다 안카나.

나. 남편이 배로 넘으면은 빨리 나온다 소리대.

다. 그래 아 놓는데 힘이 들어가 아 잘 안 나오모 아 쭉쭉 잘 넘는 사람이  
와가지고 허리를 이래 타 넘어준다. 배를 타 넘어 준다.

## 2) 예쁜 아이를 낳기 위한 방법

임부가 임신을 하면 예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데 제보자들은 ‘잉어를 먹으면 예쁜 아이를 낳는다’고 하였다. 잉어를 먹으면 아이 눈이 크고 동그라며 피부도 뽀얗다고 해서 요즘도 임신한 여성에게는 잉어를 달여 먹인다. 크고 잘생긴 잉어를 참기름, 마늘 등을 넣고 푹 고아 먹이면 예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부의 보양식으로도 좋다고 한다.

가. 그냥 보신용으로 묵는 거는 잉어나 또 그다음에 그 저 가물치 있잖아.  
요새는 모든 저게 할 때 잉어를 많이 먹어. 잉어로 잉어로 주로 먹으면  
애기가 이쁘다꼬 그거 하나씩 먹는다. 가가 특이하게 어테가 봐도 살색  
그래 깨끗한 게 이쁘. 아도 이쁘게 생겼고.

## 3) 동생 임신을 예측하는 방법

동생이 생기려고 하면 형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이를 ‘아시탄다’라고 한다. 형이 동생을 볼 때 아시타는 행동으로 대표적인 것은 자기 성기 쪽, 자기 아래쪽을 들여다보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이 어떤 행동을 하는 지에 따라 동생의 성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무엇을 자꾸 목에 걸고 다니면 남자 동생을 낳고, 무엇을 머리에 자꾸 이고 다니면 여자 동생을 낳는다고 한다.

가. 그런 거는 목에 걸모 지 동생 아들 낳고 아하. 이고 땡기면 딸 놓는다.

#### 4) 기타

열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아홉 달만에 태어난 아기를 ‘아홉달백이’라 하는데 이 아홉달백이는 여덟달백이보다 잘 살아남지 못 하고, 살아남더라도 잘 크지 않는다고 한다.

가. 아이래. 여덟달 되도 여덟달백이는 모래도 아홉달백이는 몬 산다 그런 말은 있더라.

나. 아홉달 백이는 안 크다.

【표 6】 임신·출산 관련 속설

분 류	관련 속설	
태아 성별에 관한 속설	아들은 울로 올릿뿌고 딸은 나직하이 붙는다 아들이면 디다, 딸은 쪼개 낫다 바가지 얹어논 거는 딸이다, 평평하면 아들이다 치마가 쪼롬하모 딸이고 축 치지모 르스마 치맛자락이 부풀모 딸, 치지모 아들 배가 툭 튀어나오면 딸, 허리가 두리두리하면 아들 원고개로 돌아보몬 아들, 가슴 밑에 땃해면 아들 밑에 알로 가면 딸, 늙어 배꼽이 썩 드가면 아들 이슬이 붉으면 아들 희면 딸	
유산에 관한 속설	유산을 막기 위한 속설	은가락지 물 삶아 먹다 가락지 삶아 먹다 간대기(수제비)를 날 수대로 먹다
	유산을 하기 위한 속설	젓물 약간 묵는다, 농약 조개 묵는다 언덕에서 구분다, 높은 데서 띠내린다
기타	남편이 배 넘으면 빨리 나온다, 허리 타 넘다 화장실에 가서 나면 빨리 나온다, 잉어 먹으면 애기 이쁘다 목에 걸모 지 동생 아들놓고 이고 땡기면 딸 놓는다 아홉 달백이는 몬 산다, 아홉달백이는 안 크다	

## VII. 결론

지금까지 경상도 지역의 임신, 출산에 관련한 조사 어휘를 살펴보았다. 임신, 출산에 관한 어휘 조사는 경상북도 영양, 봉화, 대구 제보자와 경상남도 의령, 함안 제보자 3명 씩 총 6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 임신, 출산 준비물, 임신, 출산 관련 금기, 임신, 출산 관련 속설에 관해서이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신을 위한 기자의례에서 기자대상에는 삼신, 삼신할마이, 삼신할마님이 있었고, 기자 행위로는 백일기도 하다, 음숙 차려 놓다, 물 떠놓고 빌다, 피옷 입고 진자리 앉아 미역국 먹다, 피옷 빌려입다 등의 어휘가 있었다.

2) 임신, 출산 준비물에는 아이를 위한 준비물에는 배넛저고리/ 이란저고리, 기저귀, 기주개/ 기저구, 두 대기/ 애기이불/ 포대기/ 띠/ 띠개/ 어울대가 있었다. 임부를 위한 준비물에는 ‘피옷’이 대표적이었고 국밥을 끓이기 위해 미역과 쌀도 따로 준비해 두었다. 출산 과정을 위한 준비물로는 ‘가위, 실, 실꾸리, 소구리’ 등이 필요하다. 준비물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사용하는 말이 달랐다.

3) 일반적으로 임신, 출산에 관한 어휘에서 금기에 관한 말이 많았고 금기는 출산 전 금기, 출산 후 금기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음식 관련 금기와 행위 관련 금기로 나눌 수 있다. 출산 전 음식 금기로는 오리고기에 관련된 것이 많이 나왔다. 오리의 모습이 아기와 닮을 것을 우려했다고 하고 상가나 제사의 음식을 잘 못 먹으로 부정을 타서 산모가 아프거나 아기가 아파서 고생을 한다고 했는데 특히 아기가 태어나고 3일 동안은 특히 이 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한다. 가족 중 누구라도 이 금기를 어기면 아기가 이유도 없이 계속 울거나 아프고 심지어 죽기까

지 한다고 믿고 있었다.

4) 임신, 출산에 관련된 속설도 많이 조사되었는데 임부를 보고 태아의 성별을 가늠하는 속설이 가장 많았으며, 유산에 관련된 속설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산모의 배 모양을 보고 태아 성별을 구별하는 속설이 많았는데 딸은 배 모양이 바가지를 엮어놓은 것처럼 볼록 튀어 나왔고 아들은 배 모양이 평퍼짐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유산에 관련된 속설은 유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과 원치 않은 임신으로 유산을 하기 위한 속설로 나눌 수 있는데 유산을 막기 위해서는 끼고 있던 반지, 은가락지를 삶은 물을 마시거나 수제비를 임부 나이만큼 먹으면 괜찮았다고 한다. 기타 속설에는 임부가 잉어를 먹으면 아기 눈이 예쁘거나 피부가白白하다고 한다. 그리고 동생이 생길 때 형이 목에다 무엇을 자꾸 두르면 남동생을 놓고, 머리에 자꾸 이고 다니는 행위를 하면 여동생을 놓는다고 한다.

본 논문은 경상도 지역의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 중 기자의례, 준비물, 금기, 속설에 관련된 범주를 정리하였는데 선행된 연구 1(임신·출산 과정, 출산 후 행위 및 의식, 신생아·임산부 관련 어휘)과의 통합 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차후 통합 방법, 활용 방법을 고민하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타 지역과의 임신·출산에 관한 어휘와의 비교·대조 작업은 궁극적으로 본 연구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므로 향후 관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2006), 『지역어 조사 질문지』, 국립국어원.
-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1994), 『경상북도방언자료집』, 경북대학교 출판부.
- 김계화(1999), 『임신·출산·산후조리 OK』, 진리탐구.
- 김난희(2004), 『임신&태교』, 김영사.
- 김도향(1998), 『마음으로 만나는 태교: 김도향의 태교에세이』, 프리미엄북스.
- 김열규(2006), 『한국인의 자서전』, 웅진씽크빅.
- 김용덕(1994), 『한국의 풍속사1』, 밀알, pp.130-175.
- 김재일(1997), 『우리 민속 아흔아홉 마당1』, 한림미디어, pp.53-141.
- 대한산부인과학회(1991), 『임신과 분만: 임신 시부터 산욕기』, 한동출판사.
- 박금자(2003), 『임신과 출산의 행복어사전』, 민미디어.
- 박용수(1992), 『겨레말갈래큰사전』, 한글문화연구회 출판부.
- 박용수(1992), 『새우리말갈래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래옥(1992), 『우리민속의 멋과 얼』, 동흥문화사.
- 최인학 외(2001),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 민속원.
- 최학근(1994),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한국방언자료집Ⅶ』, 신흥인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한국방언자료집Ⅷ』, 신흥인쇄.
-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조선왕실의 출산문화』, 이회문화사.
- 홍기욱(2010), 『임신·출산 관련 어휘 연구』,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57집, pp.189-225.

**Abstract**

Research on pregnancy and childbirth related vocabulary  
in Gyeongsang area 2

- Focusing on rituals, preparations, taboos, and myths -

Hong, Gi-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ocabulary relat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 in Gyeongsang area and systematize the vocabulary list related to it. Various vocabularies on pregnancy and childbirth topics were collected through various sources in Kyungsang Province and vocabularies about pregnancy and childbirth were listed. Here, we organized rituals for pregnancy, preparations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contraception relat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vocabulary relat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

It can be assumed that pregnancy and childbirth that started with the beginning of mankind have a long history. There are many words and expressions related to them. Due to changes in the birth culture, traditional vocabulary of pregnancy and childbirth is maintained mainly by the elderly. Therefore, investigating and eliminating the traditional vocabulary relat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 that are disappearing is a basic task for building a vocabulary relat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

Key Word : pregnancy vocabulary, birth vocabulary, reporter ritual,  
pregnancy contraception

홍기옥

소속: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전자우편 : gohong@uu.ac.kr

이 논문은 2017년 11월 12일 투고되어  
2017년 12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12월 8일 게재 확정됨.